

# 한중 FTA 발효땐 전남 피해 5조원

한미 FTA의 2배…농업전반 직격탄

농민·정치권 “성급한 체결 막아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국내 절차가 개시된다는 소식에 전남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 FTA로 축산분야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돼 가격 경쟁력이 월등한 채소, 과일·잡곡 등이 밀려들 경우 ‘농도(農道) 전남’의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12일 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발효 15년동안 도내 농산물 생산 감소 규모가 4조963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국 생산 감소액(26조1222억원)의 19%에 이를 정도로 개방 피해의 직격탄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발효 10년이 되면 생산 감소 액이 448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남도는 내다보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미

FTA로 인한 전남의 생산 감소 규모(1702억)의 2배, 한·EU FTA(전남 생산 감소 규모 466억원)의 9.6배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중국산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이나 EU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에서 전남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의 생산 감소 피해가 가장 큼으로 예측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중 FTA 발효 10년 차 국내 농업생산 감소액(2조3585억원) 중 곡물류(871억원·37%)의 피해가 가장 크고 채소·특용작물(8461억·36%), 축산(1884억·8%), 과일(1305억·5%) 등의 순으로 예측되고 있다. 결국 한·미 FTA로 축산 분야의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중 FTA는 농업 전 분야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지난 2004년 9월 열린 ‘한·중·일 FTA 합

동연구’ 세미나에서는 “한·중·일 간 FTA 체결 때 경제적 이익은 한국이 가장 적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도 “모든 전문가들이 중국과 FTA를 농업 피해하는 물론 중소기업, 경공업 산업이 초토화될 것이라는 공통된 의견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수출시장 확대 등을 위해 한·중 FTA 타결이 불가피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원칙을 충분히 만들고 농산물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방 수위를 조절하는 등 치밀한 협상 전략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은 “정말 불가피하게 체결해야 한다면 개방 수위를 조절하면서 전남 피해를 최소화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틈새시장을 활용한 농산물 수출 확대방안을 찾고 관광을 비롯, 소재·부품 산업에 주력하는 등 반대 급부를 얻어내는데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기 기자 dok2000@kwangju.co.kr

## “올해 한우 암소 10만마리 줄일 것”

농협 소값 안정대책 발표

한우 30%이상 할인판매

농협이 한우 암소 도태자금을 추가 확보해 암소 10만마리를 감축하고, 2~3월 중 4만마리 분량의 한우 불고기와 국거리를 30% 이상 할인 판매하며, 육우(고기용 젖소 수컷) 송아지 5800마리를 구매해 요리를 개발하는 등 소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협은 12일 한우암소 도태장려금 300억원과 추가 자금을 활용해 한우 암소 총 10만마리를 감축하겠

다고 밝혔다.

쇠고기 음식값 안정을 위해 지역 축협은 축산물프라자를 통해 127개, 2015년 200개로 늘린다. 정육점 영식당인 월링마트과 불고기료밥 전문점인 파스타밥도 각각 50개와 15개로 확대한다.

농협은 유동구조 개선을 위해 쇠고기 유통업체인 농협 안심축산을 생산·도축·가공·판매를 총괄하는 대형 유통업체(파커)로 유통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쇠고기 판매망인 안심축산물 전문점도

2015년까지 2000개로 늘려 시장점유율을 50%로 높일 방침이다.

2~3월에는 하나로마트 등 1천 200개 축산물판매점에서 한우 4만마리 분량의 불고기와 국거리를 30% 이상 할인 판매한다.

농협은 가격 하락폭이 큰 6개월 령 솔아지 1000마리를 확보해 시범 사육을 거쳐 송아지고기 생산, 판매할 예정이다. 육우 소시지와 송아지고기 육포 등 신제품은 3월께 시판된다.

남성우 농협축산경제 대표는 “생

산부터 유통까지 전 부문에 걸쳐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전 국민이 한·육우 소비 확대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일부 대책을 제외하고는 호응할 만한 게 없다는 반응이다. 한우 50여 마리를 사육하는 한 농민은 “농가에선 한우 암소 도태 장려금을 현행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농협은 이를 무시하고 도태 양반 늘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동기자 song@

밸브전문제조사인 엠디에는 미국, 유럽 등에 수출 확대를 위해 45억 원을 들여 사업장을 증설한다. 발전기, 전동기용 회전자 관련 국내외 특허를 다수 보유한 씬테크는 42억원을 투자한다.

이들 4개사의 투자로 227명의 고용 창출이 전망된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양만경제청, 율촌1산단 입주 4개사와 9726억 투자협약

광양만권경제청은 12일 MPC율촌전력, 현대글로비스, 앤티에스, 씬테크 등 4개사와 율촌 제1산단 입주를 위해 9726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MPC율촌전력은 2009년 율촌 제1산단에 LNG 복합화력발전소(1호기)를 세워 전력을 생산하는 외국인 회사로 이번에 7만2000m<sup>2</sup> 부지에 9489억원을 투자해 제 2호기 LNG복합화

전소를 세운다.

현재 대그룹의 물류서비스사인 현대글로비스는 150억원을 투자해 유통단단 입주업체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물류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 특별한 장학 혜택

한국우탁생 모집 ▶  
경찰행정학과 / 사회복지학과 / 유아교육과 / 초등특수교육과 / 유아특수교육과 / 행정미용학과 / 호텔조리학과 / 식품영양학과 / 간호학과 / 방사선학과 / 물리치료학과 / 한방제약학과 / 대체의학과 / 안마치료정형학과 / 의료공학과 / 자동차기계공학과 / 컴퓨터전기정보학과 / 디자인학과 / 음악학과 / 스포츠레저학과 / 태권도학과 / 무도경호학과

입학원서 접수 마감 2012년 1월 13일 (금) 까지  
신입생 추가접수 기간 2012년 2월 24일 (금) ~ 2월 28일 (화)

인터넷 접수 ▶ www.uwayapply.com / www.jinhakapply.com (유웨이어플라이) / 진학어플라이

한국우탁생 모집

교무처 www.nambu.ac.kr

교무처

교무처